

제429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2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보건복지부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보건복지부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1
  - 보건복지부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1
  - 보건복지부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00시00분 개의)

○소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보건복지부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보건복지부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소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 차장 임숙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쪽의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16억 3000을 증액하는 의견을 주시고 또 하나는 5억 5000을 증액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16억 3000은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안이고 두 번째 5억 5000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개를 설치하는 안인데 17개 지역으로 했을 때 전체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16억 3000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의 정책연구개발로서 고면역원성 독감 백신 도입과 관련된 정책연구비를 5000만 원과 1억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1억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 차장님, 5쪽에 보면 인천권역의 감염병전문병원, 여기에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상 그게 곤란하니까 경기권으로 해 달라고 그랬지요, 수도권?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수도권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수도권으로 하시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이 있잖아요, 인천에는 공항을 통해서 온 감염병 환자는 정말 철저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이 인접한 인천권역에는 반드시 감염병전문병원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감염병 환자를 잘 관리해 줘야 전국으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예, 그런 특성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계속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정책연구개발입니다.

조금 전에 1억 원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입니다.

적기 완공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입니다.

먼저 감염병관리지원입니다.

중앙감염병사업 지원기구 설립·운영을 위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CRE 감소전략 운영 등을 위해 7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7쪽입니다.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국가 차원의 항생제 내성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3억 5000만 원 증액, 내성균 조사 데이터의 완결성을 위해 3억 700만 원 증액, 항생제의 과다 사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예산으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입니다.

네 가지 세부사업에 대한 부대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과 관련하여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에 관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 고위험군·취약계층 검진 및 관리지원입니다.

미소꿈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서 8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STOP-TB 운동본부 운영지원입니다.

주요 선진국 결핵관리 정책 분석 등을 위해서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취약시설 잠복결핵감염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으로 3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두창백신 구입입니다.

100만 명분 추가 구입을 위해 26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탄저백신 구입입니다.

구입량에 따라 16억 600만 원부터 52억 5000만 원까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평가된 12세 남아 4가 백신을 26년 예산에 편성한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밝히라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15~18세까지의 청소년도 접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182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고면역원성 백신 전환에 따른 700억 원 증액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9가 백신으로의 전환에 따라 53억 400만 원, 115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13~17세까지 확대를 위해서 462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접종 대상 범위에 따라 62억 5500만 원부터 407억 6800만 원까지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26쪽입니다.

조혈모세포 예방접종지원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예방접종을 위해서 16억 7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입니다.

접종률 기준 상향에 따라 249억 2900만 원 증액 의견과 484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평택시 국고보조율 70% 복원에 따라 6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입니다.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상금 예산을 31억 8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28쪽입니다.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보상금 예산 증액 편성 필요에 대한 부대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희귀질환자지원입니다.

희귀질환 의심환자 상시 진단지원 강화 등을 위해서 14억 5800만 원 증액 의견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4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3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1쪽의 탄저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세 가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16억 600, 17억 5000 그다음에 52억 5000이 있는데 저희가 5만 명분 반영이 필요하고 현재 단가가 3만 2107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16억 600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24쪽입니다.

24쪽의 사람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증액 의견을 세 가지로 주셨습니다. 53억 400, 115억 4600 그다음에 462억 8500으로 주셨는데 이것의 차이는 백신의 단가가 차이가 나오요. 그리고 지원 범위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12세 남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맞는 단가하고 계산을 해 보면 53억 400으로 해서 액수를 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5쪽입니다.

25쪽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대상포진이 다른 감염병과 비교했을 때 사망·중증의 위험도가 좀 낮아서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입니다.

26쪽의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인데 현재 정부의 확보 예산이 42%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48%로 상향하는 의견을 두 가지 주셨는데요. 249억으로 되어 있는 것과 484억으로 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484억짜리는 저희 유통비라든가 아니면 조달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249억 2900만 원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희귀질환 관련 예산입니다.

28쪽입니다.

희귀질환 지원사업 관리로 해서 증액 의견을 14억 5800 그다음에 14억 7800 그다음에 3억 2400의 의견을 주셨는데 3억 2400은 위에서 제기한 14억 5800과 14억 7800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그 단가를 정확하게 산출해 봤을 때는 14억 7800억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중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숙영 차장님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마지막으로 복지부1차관 소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3분 회의중지)

(00시2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부1차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30쪽에, 아까 김예지 위원이 얘기한 24시간 활동지원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복지부 의견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증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1029억을 증액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1029억 24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나머지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58페이지에 아까 그 3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과 관련한 게 일부 수용 의견이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서영석** 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여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원하고 대전·세종병원도 지원하고 나머지 건립형 한 7개소 다 지원하면, 지원 단가로 계산하면 58억 4000만 원 저희가 증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58억 4000.

자, 그러면 이제 3개 남아 있는……

우선 아동수당부터 먼저 할까요? 아동수당, 69페이지.

○**김미애 위원** 아동수당을 마지막에 해요.

○**소위원장 서영석** 마지막에?

그러면 7번, AI로 가겠습니다. 10페이지.

이걸 차관님이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10페이지, AI복지·돌봄.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AI복지·돌봄 혁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증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김미애 위원님 말씀 주셔서 내역사업 중에 스마트홈 기반 돌봄서비스, 스마트시설 및 리빙랩 예산이 한 11억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한 2억 원 정도 저희가 감액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지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10쪽입니다.

○**김미애 위원**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서영석** 예, 말씀해 주세요.

○**김미애 위원** 이거를 충분히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주신 자료를 봐도 더 이해가 안 되고 똑같은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차관님도 보셨지요?

그런데 정부가 역점적으로 AI, 모든 부처의 AI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걸 막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잘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산은 한정적인데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는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아까 2차관이나 식약처에도 AI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스마트복지·돌봄과 관련된 것은 장비비 일부 삭감을 하는 것

으로 하고 관련해서 사업 진행에 대한…… 부기를 어떻게 다나요, 부대의견을?

○김미애 위원 아까 2차관 할 때 달았던 거 가져와 보세요.

○소위원장 서영석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윤 위원 부연설명을 1분만……

○소위원장 서영석 하지 마세요.

○김윤 위원 30초만……

○소위원장 서영석 예.

○김윤 위원 이게 돌봄시설의 AX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시설, 인력, 장비와 관련된 법적 기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진료비 지급과 다 연계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스마트리빙랩이 됐든지 실증이 됐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이게 장기요양 보험에 어떻게 적용될지, 장기요양보험의 법적·제도적 기준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보상 수준과 어떻게 연계될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저희 성과 평가할 때 그 부분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저도 부대의견 하나 다는데, AI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복지부가 주도하는 스마트경로당 조성 및 확산 추진 로드맵도 조속히 좀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그다음에 먹거리.

18페이지입니다.

안상훈 위원님 의견은 24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서미화 위원님은 5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전진숙 위원님 그리고 김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들은 43억, 전진숙 위원님은 20억을 증액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의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는……

○소위원장 서영석 복지부차관님이 말을 못 하고 계시는데……

○서미화 위원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서영석 서미화 위원님.

○서미화 위원 제가 아까는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이게 지금 개인하고 기업한테 식품과 생필품을 기부받아서 결국 이렇게 수급권에도 해당되지 않거나 차상위도 아닌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 현장에 나와서 물품을 직접 가져가시고 실제로 이 사업이 지역 사회에 나누고 상생하는 굉장히 좋은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 굉장히 지역사회의 주민들한테 호감도 되고 좋은 반응을 받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발굴이 돼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연결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는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정 그렇다고 하면 제 것을 조금 조정해서 조금 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합의를? 합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합의가 된 거는 아직 없고요. 지금……

○김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러면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서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사업이 먹거리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결국은 지자체가 나누어 주는 거 그겁니까?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후원도 일부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후원도 있고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후원도 있고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원래는 지자체 보조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요. 기업들이 청과나 신한은행 이런 데서는 이 사업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기부도 해 주셔서요.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이거는 푸드뱅크에다가 한쪽에 코너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와서 음식을……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주민센터. 지금 현재 푸드뱅크 하고 있는 곳에다가 합니다. 물량을 더 많이 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게 음식이기 때문에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푸드뱅크는 원래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게. 그러면 지금 각 주민센터마다 다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아닙니다, 위원님.

○김미애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신청하는 곳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설치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지자체가 알아서 합니까? 그 설치비도 지원하는 거 포함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설치비 일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인건비가……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 곳에다가 하는 거라 특별히 더 장비가 들어갈 거는 별로 없고요. 물량을 더 많이 넣는 게 원칙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곳들은 저희 쪽에 이걸 신청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 원래 사업들이 있는 템들이 있잖아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아닙니다. 그러니까 1회 정도 먹을 게 없었을 때 그냥 한번 방문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소득·재산 조사를 하잖아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한 번 정도는 먹을 거를 먹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두 번째 왔을 때는 상담을 통해서 이분을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긴급복지지원이든 다른 서비스와 연결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구조로 설계한 겁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해요? 1년? 연중?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내년, 1년 할 건데요. 아까 예산 말씀 주셔서, 감액 말씀 자꾸 하셔 가지고요.

○서미화 위원 아니, 내 것을 좀 깎읍시다.

○안상훈 위원 저……

○소위원장 서영석 안상훈 위원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래서 안상훈 위원님 말씀 주신 감액이 24억 원이 있고 서미화 위원님은 증액을 50억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순증을 20억 정도 일부 수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안상훈 위원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부탁드립니다.

○서미화 위원 안상훈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안상훈 위원 20억이요?

○서미화 위원 예.

○안상훈 위원 저는 24억 8700 그대로 하시라 그러라 그랬더니……

전 이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구나라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좀 주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제약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가장 중점적인 목표가 위기가구 발굴이라 그랬고 아까, 국장님 이시지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현 예, 맞습니다.

○안상훈 위원 이게 기준에 굉장히 성과가 있다 그러셨는데 제가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경기도가 많이 했으니까 보면 30만 명 중에 위기가구 발굴 건수가 398건, 0.13%예요. 그래 가지고 이 주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조금 기준 성과를 보면 이게 진짜 위기 발굴을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나 또 퀘스천 마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되, 하시되 그러면 뭐 20억이라고 하셨으니까 20억으로 하시되 위기 발굴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각종 노력을,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촘촘하게 짜셔 가지고 하시는 거로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예,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평가하시고 보고도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생계형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니까 전진숙 위원님 안대로 20억 7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아니요, 20억으로 하는 거겠지요.

○서명옥 위원 20억으로 하는 거지요, 증액이 아니라.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안상훈 위원님 안은 24억을 감액하자

는 안이고 서미화 위원은 50억을 증액하자는 안이어서 그 중간을 선택하자는 것으로 지금 전진숙 위원안의 20억안을 채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사업 대상은 조정해서……

○전진숙 위원 20억만 증액하는 걸로……

○안상훈 위원 아니, 차관님 얘기하신 거는 예산 20억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전진숙 위원 아니에요, 아니야.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김미애 위원 25억으로 감액……

○이수진 위원 아니, 본예산만 깎겠다는 거지요, 본예산을.

○전진숙 위원 증액 20억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사업 개소 수를 이왕 하는 김에 확대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전진숙 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미애 위원 그거는 증액안을 수용한 거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감액안에 대해서도 25억을 수용한다 안 하셨어요?

○전진숙 위원 아니에요.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거는……

○이수진 위원 수용한다고 했어요.

○김남희 위원 수용한다고 했어요.

○서미화 위원 안상훈 위원님이 양보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거예요.

○서명옥 위원 아까 있다고 했어요.

○김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의논을 했는데 또 아니라고……

○이수진 위원 수용한다고 하셨어, 감액 수용한다고 그랬어.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24억의 감액안이 있고 50억의 증액안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맞아요.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2개 다를 받아들인다 그 소리잖아.

○소위원장 서영석 2개 다 없애고 20억 증액안으로 정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미애 위원 아닌데?

○안상훈 위원 아니, 복지부 원래 했던 액수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전진숙 위원 복지부 24억 그대로 있고 증액을 56억 해 달라는 거를 20억만 하자는 거예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그냥 감액, 증액도 빼고 그냥 복지부 원안대로 하시지요.

○안상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자는 거예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수진 위원 그러면 원안으로?

○안상훈 위원 원안대로.

○김남희 위원 증액도 안 하고 감액도 안 하고?

○이수진 위원 안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하세요.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진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서영석 50억 증액안을 서미화 위원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 중간의 20억 증액안으로 정리를, 조정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니까 50억에서 24억을 빼자고……

○소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이건 위원장의 면을 봐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서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전진숙 위원안의 20억 7700만 원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나머지 마지막 남은 주제. 아동수당이 69페이지.

지금 복지부의 의견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는데 안상훈 위원님과 김미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역화폐 발급 비율을 조정해서 38억 정도를 감하는 것은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동수당 대상을 1살 늘리고 1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동수당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지역별 차등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복지위에서 아동수당 관련한 심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21대 때도. 그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되고. 앞으로도 해당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끌어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삭감 주장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안상훈 위원의 감액 주장 그리고 저의 감액 주장 이것 2개를 유지를 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래서 집에 안 간다고?

○이수진 위원 아동수당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김미애 위원 아니지, 당연히 주는 거지.

○이수진 위원 10만 원 주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김미애 위원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동의한다니까요.

○이수진 위원 전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10만 원씩 주자는 거 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김미애 위원 그거 10만 원 인정을 해요. 내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전진숙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기본을 놓고 좀 더 두텁게 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주는 거 다 동의한다니까. 그런데 조금 더 두텁게 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김미애 위원 1살 늘리고 10만 원 동일하게, 지역별 차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등이 아니지요.

○김미애 위원 차등이지.

○이수진 위원 10만 원 주는데 무슨 차등이에요? 10만 원 주면 되는 거지.

○전진숙 위원 그게 왜 차등입니까? 좀 더 두텁게 더 얹어서 주자고 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 김미애 위원 10만 원씩 똑같이 주자는 거지 거기에서 지역별로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 이수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차관님한테도 야당 위원님들 입장을 고려해서 38억 감액 조정해서 가져왔고……
- 김미애 위원 그건 입장 고려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정부를 존중한 거지요.
- 이수진 위원 그리고 10만 원, 1살에서 주기로 했으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거지……
- 김미애 위원 아니, 정부를 존중했지요. 1살 늘리고 10만 원 늘리는 것을……
- 전진숙 위원 아니, 위원님,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 조금 배려를 해 주세요.
- 이수진 위원 정부가 그 외에 합리적으로 조금 더 뭔가 만드는 건 다르잖아요.
- 김미애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업 목적을 봐야지요. 여기서 왜 지역화폐가 나오고 그래요?
- 전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게 그렇잖아요.
- 이수진 위원 너무 정치적으로 하시잖아요, 지금.
- 김미애 위원 정치적인 건 뭘 정치적입니까?
- 이수진 위원 진짜 아이들한테 돈 주는 것을 왜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세요?
- 김미애 위원 아예 0원으로 삭감했던 것은 지난 정부 때 한번 돌아보세요.
- 이수진 위원 지방에 사는 아이들, 부모를 돈 안 주는 거 뭡니까?
- 김미애 위원 우리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사업 할 수 있는 거 다 인정해 주잖아요.
- 이수진 위원 뭘 다 인정을 해요?
- 김미애 위원 1살 늘리고 10만 원 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의논한 적 있습니까?
- 이수진 위원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도 야당 위원들이 증액 의견 낸 거 다 받고 하시잖아요.
- 김미애 위원 그렇게는, 기준 없이 원칙 없이 하면 안 돼요.
- 이수진 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낸 거 제대로 받지도 않았어요, 야당이라고.
- 안상훈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제안이라고 그럴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재분배 문제 생각을 한다면 지금 13세까지 가는 플랜에서 10만 원씩 주는 것은 내년에 9세 이거 받고요.

지금 저희가 감액한다는 것은 지역 문제를 여기에다 갖다 대는 것은 정책 목표에 맞지 않으니 만약 정말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분배를 조금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국기초의 생계비에 아동에 대해서 추가 급여를 준다고 하면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이 감액분을 그대로 그쪽으로 돌린다고 하면 지금 13세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당장 내년에 13세까지 빈곤아동에게 그 돈을 줄 경우에 1인당 월 3만 원 훨씬 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산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수도권에 살든 지역에 살든 더 어려운 진짜 빈곤아동들에게 추가 급여를 이렇게 쓸 돈을 주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왜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단순히 재분배 목적 만으로 얘기됐던 건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너무 극심한 수도권 집중과 또 지방소멸 문제 때문에 특히 그것 때문에 저출생·고령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이런 국토 균형발전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원래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국가가 더 많고 또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국가의 제도는 그 국가가 당면한 과제와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게 설계되는 게 맞고.

또 그런 취지로 우리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이미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안 맞는다고 하면 지금 저희 정부의 새로운 기조랑 방향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논의를 합니까?

저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뭘 반대했습니까? 1살 늘리고 10만 원 주고 다 했지요.

○이수진 위원 아니, 반대했지요. 법안소위에서도 지금 안 했잖아.

○김미애 위원 AI 관련한 것 대부분 다 받아들였잖아요.

○이수진 위원 아동수당법 다 통과 안 시키신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미애 위원 아니, 지난 정부 때는 아예 특활비 0원으로 한……

○이수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되게 정쟁적으로 보여요.

○김미애 위원 그게 무슨 정쟁이에요? 그런 게 정쟁이에요.

○이수진 위원 아니, 법안소위에서도 아동수당법 안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요. 통과 안 시켰잖아요.

○김미애 위원 아니, 그것은 심사하면 되지요.

○이수진 위원 그것 심사해서 통과시킬 거예요?

○김미애 위원 일부러 미룬 겁니까, 그게?

○이수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그게 왜, 우리가 무슨 이것을 정쟁으로 삼아요? 언제 한번 이걸로 지역별 차등으로 한 적 있고…… 지역화폐로 한 적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예요.

○이수진 위원 아니, 이게 큰 액수도 아니고 큰 액수도 아니고 이게 다 효과가 있는데 효과 있는 것조차도……

○김미애 위원 이걸로 논쟁을 한 적이 없다고요. 이미 정쟁으로 삼고 있어요.

○이수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치 이재명 표라고 생각해서 웬지 이것은 걷어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신 것 같아.

○김미애 위원 아동수당조차도 이재명표 꼬리를 달고 싶은 거예요.

○이수진 위원 아니, 법안소위할 때도 너무나 그런 모습을 보이셨었고……

○김미애 위원 그게 무슨……

○이수진 위원 예산 드니까 예산에서 지금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김미애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안상훈 위원 아니, 이거 정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효과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효과 근거도 없어요.

○이수진 위원 아니, 법안소위를 통과시켰으면 제가 이런 생각도 안 할 텐데 사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여기까지 존중해 갖고서 가져왔는데 마지막에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합의가 안 되니……

○김미애 위원 아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다 했지요. 야당이 무슨……

○이수진 위원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기본적인 것을 반대하지 않잖아요.

○안상훈 위원 아니, 지역 균형, 인구감소 문제 이것은 교육·경제·산업·부동산 이런 문제로 풀어야지 왜 이것을 아동수당 가지고 거기마다 갖다 땡니까?

○이수진 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인데 이미 자체는 이런 수당을 통해서 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들에게 아동수당을 조금씩이라도 더 주면 실제로 그게 이유가 되고 유인책이 되고 있으니까 풀고 있어요. 이것 지역에 있는, 지역에 사는 아동들한테 조금 더 주자는 건데……

○안상훈 위원 아니, 진짜 1만 원, 2만 원에 이사를 간다고요?

○이수진 위원 데 주고 빼았으면 모르겠습니다.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놔두고 더 주자는 건데 그것을 안 주려고 하는 건 진짜 애들 간식비 빼는 거 아닙니까, 지방 애들 거?

○김미애 위원 그럴 바에는 안상훈 위원님 제안대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더 주는 게 맞지요, 그 돈을.

○전진숙 위원 더 이상 논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소위원장 서영석 어쨌든 안상훈 위원님의 지적과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지역화폐 발급 비율을 조정해서 최소한 복지부가 그 지적을 존중하고.

아동수당을 빙 수도권이나 또 지방 우대 지역에 대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안 되면 의결을 못하게 되는데요. 서로 양보를 하시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1살 늘리고 10만 원 그거 다 동의하잖아요.

○전진숙 위원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김미애 위원 아동수당이, 서로 존중해요.

○전진숙 위원 아동수당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없어요.

○김미애 위원 아니, 이재명 정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전진숙 위원 그 나라의 특성과 이 모든 것이 조화가 돼서 저희가 설계하기 나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김미애 위원 그것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구태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더 주자는 거지요.

○**안상훈 위원** 아니, 설계를 한다고 해도 정책 효과나 이런 걸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지요.

○**전진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인구소멸 문제 그리고 더 플러스 경제성,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택을 하는 문제인 거예요.

○**김미애 위원** 취약계층에 더 줘요, 그 돈을 아예 그러면 취약계층 아동에 더 줘요. 그게 더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전진숙 위원**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미애 위원** 뭐가 상징적이에요?

○**전진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미애 위원** 아동수당에서까지 지역 균형을 얘기해요.

○**서미화 위원** 아니, 수도권 아동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3만 원씩 다 더 주자고 증액을 시키면 어때요, 안상훈 위원님?

○**전진숙 위원** 아니,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그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김미애 위원** 내년에 대상 또 늘리잖아요. 해마다 늘리잖아요.

○**전진숙 위원** 사람이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국가를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지점을 고민을 해 주셔야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지는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야당 위원님들 주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의결이 안 되면 지금까지 한 논의가 정부 원안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왜 한 번도 이 부분을…… 우리의 주장과 고민을 의논을 안 합니까, 정부가?

○**김남희 위원** 지역화폐 비율 삭감했잖아요, 38억이나 깎았는데.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고민을 하니까 그나마 38억이라도 조정을 한 거잖아요.

○**김미애 위원** 그게 무슨 의논이 된 거예요? 기본 원칙에서 벌써 맞지 않는 거지요.

○**전진숙 위원** 아니, 계속 이야기를 해 온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이수진 위원** 아니, 말씀하셔서 지금 제일 많이 깎았어요, 38억.

○**김미애 위원** 그게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동수당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걸 구태여 넣어 왔잖아요.

○**전진숙 위원** 아동수당의 목적이 어디 나와 있는데요, 김미애 위원님? 어디에 나와 있어요?

○**김미애 위원** 거기에 있잖아요, 법에. 아동복지법을 보세요. 법의 목적이 아동의 복리 증진입니다.

○**김남희 위원** 그 목적이랑 뭐가 안 맞아요? 다 포함된 개념이지.

○**소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을……

○김미애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아동에 더 주는 게 더 맞아요, 그렇게 할 거면.

○소위원장 서영석 야당 위원님들 주장이 충분히 기록에 남아 있다고 보고 충분히 주장할 만큼 주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또 입장들이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지금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래야지요.

지금 제안한 게 지역화폐 발급비율 조정 38억 안을 조정한 거고 그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김예지 위원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불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어디에서 줄 일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줄여 버리면 원 계획도 훼손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줄이기가 어렵지만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을 계속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김예지 위원 그러니까 약간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줄여 주시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말고 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통해서 줄여 주시면 조금 저희가……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을 실행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이 정도면 정부가 그냥 1살 늘리고 10만 원 하는 게 맞지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골격이고. 여지껏 그렇게 왔잖아요. 뭐 특별한 거 주장합니까?

○서명옥 위원 그리고 아이 키우는 30대, 40대 엄마들은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30대, 40대 젊은 엄마들은 더 힘들어요. 거기에 왜 굳이 차별을 둡니까? 왜 차별을 두냐고요.

○김남희 위원 지방에서 살아 보세요, 한번. 그렇지 않아요.

○김미애 위원 나도 지방에 살았어요. 그걸 무슨 그렇게 빗댑니까?

○서명옥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김남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진짜. 지역이 어떻게……

○김미애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아동에게 더 지급하는 게 우리의 취지에 맞지요.

○이수진 위원 사실 각자 경험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김남희 위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다른 제도들이 있잖아요.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도 있고 기초수당도 있고……

○서명옥 위원 거기에 더 얹어 주자는 거지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지역 차등은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무슨 아동수당으로 그것을 해요?

○소위원장 서영석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는 결론이 안 나고. 어쨌든 야당 위원님들 주장이 충분히 주장이 됐고 또 여당 위원님들도 여당 위원님들대로의 고충이 있고 주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 어떻게 결론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든 정도로 해서 38억 정도로 조정을 하고 그렇게…… 그러면 이때까지 뭘 왜 한 거야,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상훈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우려하는지 또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안상훈 위원님이 결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남희 위원** 안상훈 위원님 말이 나는 맞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성으로 따지면 1만 원 더 준다고 지방에서 살기 더 편해지냐, 이거 아닌 건 맞는데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시그널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그게 국가 전체적인 철학이나 방향인 건데 그런 취지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안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업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전부 다 해요?

○**김남희 위원** 예,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너무 심각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방식을 조금이라도 모색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려는 거지요, 사실.

○**소위원장 서영석** 지금 상황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안으로 의결을 못 하면 복지부 전체가 오늘 의결을 못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를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면 이걸 못 하면 정부안으로 가는 거예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렇습니다. 정부안으로 가는 겁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면 정부안이라고 하면 수용한 것은 아니고?

○**전진숙 위원** 아니고, 다 빼고 원래 원안.

○**서미화 위원** 원래 본안으로?

○**전진숙 위원** 원래 본안.

○**소위원장 서영석** 지금 하여튼 참고로 정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 그러면 잠깐만 정회해 주시면 안 되나요?

○**소위원장 서영석** 기다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발언권 없이 이야기한 거는 속기록에 작성이 안 되는 거지요? 발언권 안 얻으려고 그래요.

○**소위원장 서영석** 다 됩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전진숙 위원**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김미애 위원** 우리가 아무리 의논을 해도…… 원칙이 있는데, 아예 그냥 일률적으로 금액을 인상을 하자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차등을 두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때까지 뭐 한 거예요?

○**김미애 위원** 그 얘기를 했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도 그 얘기야.

○**서명옥 위원** 좋잖아요, 올려 준다는데.

○**김미애 위원** 그냥 올려 주면 되지. 물가도 많이 올랐고 환율도 뭐…… 그래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서명옥 위원** 차관님!

○**김미애 위원** 5000원, 1만 원 이렇게 차등 두고 하지 말고 그냥 일률적으로 올려 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일률적으로요?

○**안상훈 위원** 아까 서미화 위원님도 똑같이 올려 주지요. 똑같이 올려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럼 12만 원이라도 받아 보자?

○**김미애 위원** 예, 그거 전부를.

○**서명옥 위원** 12만 원이든 13만 원이든.

○**안상훈 위원** 보편적으로 똑같이 올려요, 지역 이런 거 비합리적인 거 하지 마시고.

○**서명옥 위원** 이왕 주는 거 화끈하게 올려 줍시다, 물가도 올랐는데.

○**안상훈 위원** 돈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은 못 해 봤지만……

○**소위원장 서영석** 자, 그러면 지금 새로운 암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5000원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1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만 원 이렇지요?

○**김미애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의 기대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올려 줘야지.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암이 그런 거지요? 비수도권이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이 1만 원, 특별지역이 2만 원.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합의된 것은 아예 12만 원으로 전액 지원하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예산 규모가 나올 수 있지요?

○**김미애 위원** 곱하기하면 되지, 숫자 곱하기.

○**안상훈 위원** 1만 원, 2만 원, 3만 원 한번 뽑아 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장님,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의 의견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합의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합의요?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야당, 여야가 합의하는 것으로 하고……

○**전진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뭘 합의를 한다고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0세부터 8세까지 12만 원을 지급하자 이런 안입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암이.

○**전진숙 위원** 야당 위원님들의 암이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야기를 좀 해야지요, 민주당도. 저희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오늘 논의는 정리하지요. 오늘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진 위원** 오늘 그만 끝내시지요.

○**전진숙 위원** 저희도 좀 이야기를 해야지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나가셔서 이야기를 하고 오신 암이신 거고 저희들 이야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김남희 위원** 우리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진숙 위원** 계속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수진 위원** 그냥 오늘은 결정 못 할 것 같은데요.

○김남희 위원 예, 오늘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미화 위원 그러면 우리도 나가서 얘기하면 됩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지금 얘기는 아까 정부안은 38억 정도로 조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얼마를 감액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야당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0~8세까지를 10만 원이 아니고 12만 원을 다 지급하자 이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주자는 거니까, 덜 주자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당국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부가 답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애 위원 그냥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오전에 전체회의 전에 조금 빨리 해서 결론내는 것 어때요? 지금 정부도 답변 못 하잖아요.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그런데 시간이 내일 10시 전체회의라서요.

○김미애 위원 정회가 너무 길면 안 되나?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그리고 이 회의장에서 소위, 전체회의를 다 하기 때문에 10시에 전체회의 하려면……

○김미애 위원 그 전에 하자고.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그 전에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도 정리가 안 됐는데, 내일 위원님들 10시까지 회의 하시기로 했는데……

○소위원장 서영석 일단 38억을 받으시지요.

○이수진 위원 지금 2026년 아동수당, 정부안에다 플러스 2만 원 예산 더 넣겠다는 것 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기본 골격을 유지하자는 거지요, 거기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크게……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빼 거 빼고 2만 원 수당 더 넣자는 거예요?

○김미애 위원 2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만 원으로 하자, 똑같이.

○이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게 26년안에 2조 4800억인가요, 여기에다가 2만 원의 예산을 더 넣자는 거 아니에요? 중액의 건인 거잖아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어쨌든 2만 원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건 기재부하고 상의를 할 수 있을지가 지금 정부로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액하는 것도 사실은 기재부에서 다 잘리는, 협상 과정에서 잘리게 되는데 12만 원을 하는 것의 예산 규모가 재정적으로 과연 감당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은 원칙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안상훈 위원 그러니까 최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지역 부분에 대한 감액하자고 그랬던 걸 N분의 1로만 나눠도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이.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 2조 4800억에다가 2만 원, 약 한 800억 그걸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지요?

○김미애 위원 숫자 곱하기 2만 원 하면 돼요.

○김예지 위원 완벽히 2만 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만 원에 이미 지급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거기다가 넣는……

○서명옥 위원 기존에 이미 지급한 게 있기 때문에 빼고 해야지.

○이수진 위원 그것까지 하기에는 복잡하고 추가면 추가고 증액이면 증액이고 감액이면 감액이고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지. 지금 증액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정부가 답을 할 수 없는 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재부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정부 재정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한 걸 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상훈 위원 아니, 기재부는 총액 아닙니까. 그 총액 가지고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가 있다면 더 올리는 것까지도 오케이를 하겠다.

○이수진 위원 산회하시지요. 복잡해서 도대체…… 증액인지 감액인지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어요. 그냥 증액으로 하시면 어떻게든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김미애 위원 증액이에요.

○안상훈 위원 아니, 이게 증액이 될 거예요.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기존 안에다가 증액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기존 정부안에 대한 2만 원 증액이잖아요.

○전진숙 위원 지금 기존 안을 아니라고 하시니까 문제잖아요.

○서미화 위원 그게 아니고 기존 안에 증액을 해 달라는 말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예지 위원 맞아요.

○김미애 위원 아니,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소위원장 서영석 여기서 답을 내릴 수가 없네.

○안상훈 위원 프로그램 설계 자체를 원칙대로 하고 액수를 올리려면 올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앞의 원칙대로라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주장하는 액수를 뺏으면 좋겠다, 빼라는 건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고.

○소위원장 서영석 너무 어렵게 일을 만들고 계시네.

○전진숙 위원 우리 그러면 그만합시다.

위원장님, 이야기가 계속 안 되면 의결 못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러니까 의결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안 하면……

○전진숙 위원 의결 못 해요. 그러면 그냥 하지 말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더 합니까, 이야기가 아예 안 되는데.

○안상훈 위원 아동수당에서 지금 지역 이슈가 메인이 되는 게 저는 진짜……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알아들었고요. 합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주장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전진숙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안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리자니까요, 똑같이.

○전진숙 위원 아니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똑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기본적인 보편적 복지에다 플러스알파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똑같이 올리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 출발 자체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안상훈 위원 아니, 이 제도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전진숙 위원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안상훈 위원 그러면 이름도 다 바꾸지 뭐.

○전진숙 위원 복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해 왔던 거 아닙니까?

○서명옥 위원 지금 이건 보편적 복지지요.

○소위원장 서영석 어쨌든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제안한 38억을 받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결을 하고.

○서명옥 위원 아니, 많이 주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올리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반대하시지. 이해가 안 되네.

○소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안상훈 위원님이 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이건 원칙에 대한 문제고 아동수당의.....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충분히 알아들었다니까요.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서로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전진숙 위원 감정 아니에요.

○이수진 위원 그러면 표결해요? 이견을 좁힐 수 없으면 표결을 해, 어떻게 해.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요. 아니면 표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진숙 위원 안 되면 표결하시지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파투 내고 전체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예산 다 날리면 되는 거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지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안상훈 위원 어떻게 민생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진숙 위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가 양보하자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지금 1시, 2시 다 될 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미애 위원 이건 정부안에 대해 양보를 한 겁니다, 야당이. 원칙을 지켜 주잖아요. 그걸 견드리지 않았잖아요.

○전진숙 위원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김미애 위원 아니, 연령을 인상하고 금액을 정하는 것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차등하는 이걸 지금 우리가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진숙 위원 김미애 위원님,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아예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동수당 확대를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전진숙 위원 어쨌든 민주당 위원님들도 협의해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저로서는 어쨌든 정부하고 충분하게 상의한 38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김미애 위원 그냥 표결을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전진숙 위원 표결을 해요, 안 되면, 그 방법밖에 없으면.

○소위원장 서영석 표결합니까?

○이수진 위원 하시지요, 그냥 표결. 그래야 집에 갈 것 같은데요.

○전진숙 위원 지금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밤새도록 하고서는……

정말 나를 나쁜 사람 만드네.

괜찮겠습니까, 표결로 해도?

○김미애 위원 할 수 없지요.

○소위원장 서영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동안 가급적이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애를 써 왔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표결로 해도?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전진숙 위원 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찬성을 해야지.

○이주영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영석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왜냐하면 표결하기 전에 저도 입장을 밝히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있고 또 하셔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 제가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했던 상황들까지도 예산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는 일부러 그냥 협조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걸 아마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 부모의 소득이라든가 성장하는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그리고 평등한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원칙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고 한번 훼손된 원칙이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혹시라도 파급을,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취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화폐라는 도구가 물론 좋은 여러 면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아직까지

는 여러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지역에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동수당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지자체 쪽으로 지원을 하는 우회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수당이라는 것을 사실상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일이겠는가 하는 의문은 저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저도 저희 당의 입장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표결은 이 건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시는 거지요? 전체 의결의 표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합의를 할 건지?

○**소위원장 서영석**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주영 위원** 전체 의결이요?

일단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아동수당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민주당의 여러 사업이나 기조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하고자 하지만 이 부분은 이게 조금 흔들리게 되면 앞으로의 다른 수당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원칙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실어서 제가 표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기존에 그동안 논의해서 합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기존대로 논의한 대로 하고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도 표결을 해야 됩니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존에 논의한 내용과 아동수당을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1인 중 찬성 6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난항을 겪었던 게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장의 부덕의 소치로 잘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세부적인 계수 조정과 부대의견 문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4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남희 김미애 김예지 김윤 서명옥 서미화 서영석 안상훈 이수진 이주영  
전진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운  
전문위원 오세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정책기획관 임호근  
복지정책관겸연금정책관직무대리 배경택

복지행정지원관 박재만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노인정책관 임을기

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현

장애인정책국장 손호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한의약정책관 정영훈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중규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건강정책국장 곽순현

정신건강정책관 이상원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첨단의료지원관 신꽃시계

질병관리청

차장 임숙영

기획조정관 이상진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조경숙

진단분석국장 김갑정

의료안전예방국장 손영래

만성질환관리국장직무대리 김유미

건강위해대응관 오진희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 정영기

미래의료연구부장 전재필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김원호

# 임시회의록